

논찬_교육 2

안영혁 교수의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연구” 논평

최진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안영혁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코메니우스를 “기독교 세계관 탐구의 탁월한 학자”로 소개하며, 이를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연구」 라는 주제를 통해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고 있다.

안영혁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세계관의 논의를 먼저 ‘인격’과 결부 시켜 전개한다. 왜냐하면 세계관 논의의 중심인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로서 인간창조의 배경이자 인간인격의 배경이 되며, 인격개념 또한 이러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 연구는 인격적이며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이고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이 지향하고 있음을, 안영혁 교수는 코메니우스의 완벽한 범지혜(Pansophia) 교육서 『세계도해』(Orbis sensualium pictus)를 통해 분석·증명해주고 있다.

I. 안영혁 교수의 이러한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지닌 독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인간 ‘인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자연스럽게 교육과 연결시킨 점이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미 상식이 되어있는 인간 인격의 구성요소인 자정·의를 인간본성을 구성하는 주요개념임을 철학적인 해석으로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에서 추구하는 인격이해와 결합하여 코메니우스 세계관이 인격지향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범교육학』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이 ‘인격’, ‘교육’,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2. 둘째,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이 ‘존재론’ 및 ‘인식론’과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교육론에서 세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omnia)에 대한 앎(지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안영혁 교수는 코메니우스가 제시하는 ‘세 가지 책들’ 즉, ‘자연’, ‘인간’(정확히 말하면 ‘인간 정신’), ‘성경’이 바로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모든 지식’(Pansopnia)을 담고 있는 존재론적 제시라고 본다.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인 인간의 ‘감각’, ‘이성’, ‘신앙’을 인식론의 3요소로 제시하며,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존재론(엄밀히 말해 판소피아론)과 인식론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이해의 중심이 됨을 명확히 규명해 주고 있다.

3. 셋째,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세계관을 안영혁 교수는 코메니우스가 본 인간의 12가지 본성적 욕구(존재, 건강, 지식, 지혜, 자유, 일, 소유, 평화, 명예, 말, 도덕, 신앙)와 연결하여 해석한 점이다. 사실 인간의 이 본성적 욕구는 인간 존재론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인간의 삶에서 바르게 지향되도록 인도되어야 하기에 교육의 자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 인간의 인식도구들(감각-이성-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4. 넷째, 인간의 이 본성적 욕구를 코메니우스가 교육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 하였음을 『세계도해』를 통해 발견하고, 이를 교육 과정적으로 통찰력 있게 해석해낸 점이다. 이를 통해 안영혁 교수는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이 인격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독교적 토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하나의 완벽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음을 해석해 내었다.

결론적으로 안영혁 교수의 논문은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이 세계관적 기반을 지니고 있음을 철학적, 신학적, 교육적, 교육과정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해준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평가된다.

II. 코메니우스의 지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엽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I. 인격의 개념과 신학 및 코메니우스의 관점” 주제 하에, 2 번째 단락 중간 부분 “필자가 재해석하는 바로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받아들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감정 작용이며, 지성과 감정의 운동이 마침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의지를 중심한 작용이다.”

->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외부 사물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외적감각’(오감)의 역할이며,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¹⁾ 필자의 재해석부분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2. “I. 인격의 개념과 신학 및 코메니우스의 관점” 주제 하에, 7번째 단락에서 코메니우스가 ‘이성’(지성)에 비해 ‘감정’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안영혁 교수는 말하며, 『범교육학』(4,10)의 한 본문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제시한 인용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따르는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 성향을 설명하는 본문이지, 코메니우스가 인간 감정이 이성(지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성향은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지성’(이성) 조차도 불안정함을 지적한다.

3. “I. 인격의 개념과 신학 및 코메니우스의 관점” 주제 하에, 세 번째 인용문 “....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화술과 그들의 손이...”에서, 안영혁 교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감정(heart)”로 해석하고 있다.

-> 코메니우스는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전에서 “cor”, 즉 ‘감정’적 성향보다 ‘의지’의 성향을 띠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완·설명내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이 기독교 세계관을 자연스럽게도 완벽하게 체화하여 그의 교육론에 나타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에 대해 안영혁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1) “I. 인식(cognitio)의 시작은 항상 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감각 작용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이해력(intellectus)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물이 감각으로 보여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II. 학문의 진리와 그 확실성은 감각의 증거 외에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직접적으로 감각에 새겨지며, 그 감각의 중재를 통하여 이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III. 감각이 기억의 가장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사물들의 이러한 가시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견지하는제 영향을 미친다”(『대교수학』, 20장 7-9; 5장 6 참조)